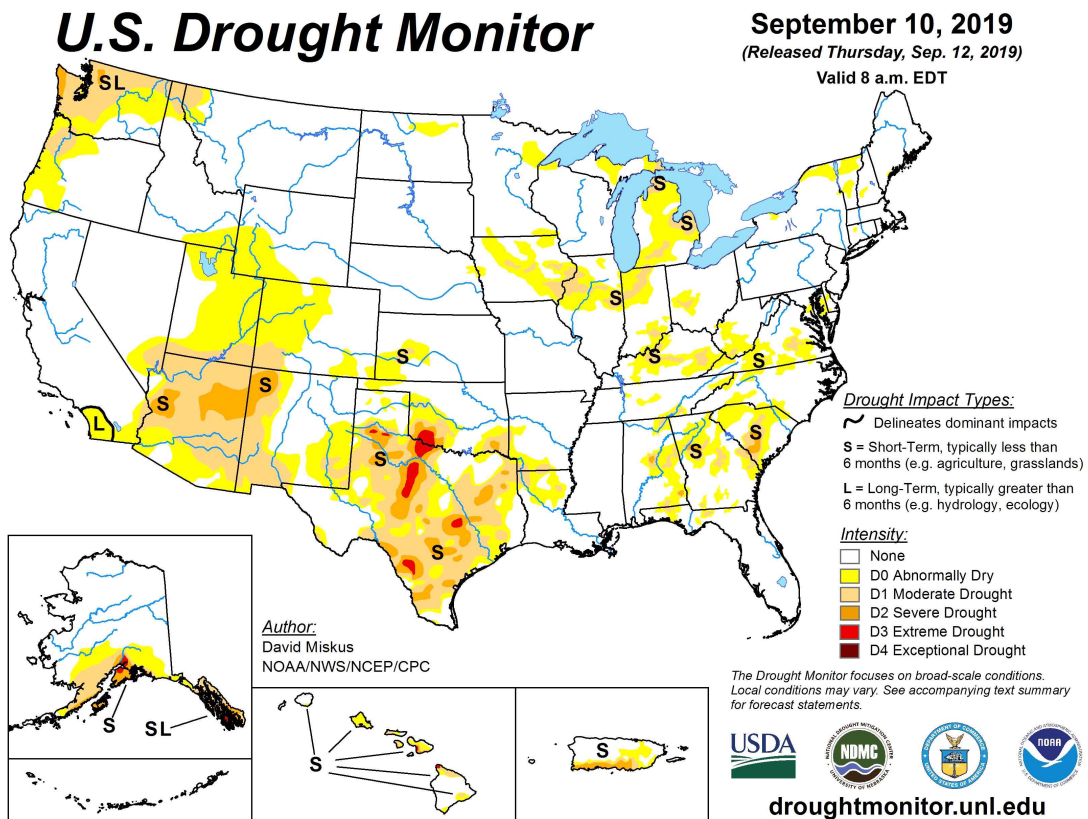


9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77)

□ 미국 기후 현황(9/8~9/14)

전선 경계가 진동해서 북부와 서부 일부에서의 차가운 조건들과 남부 전역의 늦철 폭염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선의 경계는 주 후반에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미국의 많은 곳들이 더운 날씨를 겪었다.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일부는 예외적으로 계속 시원했거나 시원해졌다. 평원의 중부와 남부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과 남동부의 많은 곳까지의 넓은 면적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 F 높았다. 미시시피 삼각주 북부에서부터 애팔래치아 산맥 중부까지 뻗어 있는 지역은 평년과 대비하여 가장 더웠던 곳들 가운데 속했다. 대조적으로 산간 서부 일부를 지나 동몬타나에서부터 오대호 지역 위쪽과 뉴잉글랜드 북부 안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낮았다. 전선 경계 근처에서 큰 소나기가 쏟아져 북부의 많은 곳을 적셨다. 비는 특히 평원 북부와 중서부 위쪽 전체에서 심하게 내려서 홍수를 일으켰고 소곡류 수확과 기타 초가을 포장 작업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였다. 상당량의 강우가 태평양 북서부에도 내렸다. 동부, 남서부, 평원 남부를 포함하여 기타 다른 지역들에는 소나기가 널리 산발적으로 내렸던데 반하여 캘리포니아, 그레이트베이슨, 오하이오 계곡은 대체로 건조했다. 미국 남중부와 남서부에 내린 비는 모두, 늦여름 폭염과 건조가 방목지, 초지, 천수 여름작물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한적이고 지역적으로만 해소해주었을 뿐이었다.



□ 농업 현황 요약(9/9~9/15)

주 중에 내린 비는 9월 15일에 끝났는데 북일리노이, 동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일부에서 가장 심하였다. 어떤 지역은 강수량이 4 인치 또는 그 이상이었다. 오대호 남부, 대평원 남부, 미시시피 계곡, 남동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6° F 이상 높았다. 반면, 캘리포니아, 대평원 북부, 미네소타, 뉴잉글랜드, 네바다, 태평양 북서부, 로키산맥, 위스콘신 일부는 평년보다 4° F 이상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9/8~9/14)

■ 유럽: 북동부 작물 재배 지역에 있었던 가뭄 걱정은 비가 추가로 내리면서 완화되었지만 발칸반도는 물론이고 북유럽 다른 부분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건조와 가뭄이 계속되었다. 북이탈리아부터 북동쪽으로 독일 남부와 동부, 헝가리, 폴란드의 많은 지역들까지 주초에 내린 중간-강한 비 (10-6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계속되던 단기 가뭄을 완화 내지 없애 주었고 겨울 작물 파종과 출현을 위한 표토 수분량을 상승시켜주었다.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 전역과 독일의 북서부는 비가 약하게 (5 mm 이하) 내렸는데 프랑스 중부와 북동부는 단기 가뭄 (60일 강수량이 평년의 50% 이하)이 현저했다. 이 지역들은 겨울 작물 파종 특히 흔히 제일 먼저 심는 하능 유채를 위해서는 곧 수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북영국에서부터 스칸디나비아까지는 지난주에 소나기 (2-40 mm)가 추가로 내려서 북해에 인접한 작물 재배지는 수분 공급이 계속 좋았다. 유럽 남동부에서는 늦여름 더위 (30-32° C)와 건조가 옥수수, 해바라기, 콩의 건조와 수확 작업을 가속화시켰지만 심각한 단기 가뭄 (30일 강수량이 평년의 5% 미만) 때문에 겨울 작물 파종과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줄였다. 이와 반대로 스페인에 이따금씩 내린 소나기 (2-2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는 남부의 가뭄을 완화시켜주었고 북부에서는 수분을 좋게 유지시켜주어서 다가오는 겨울 곡물 파종과 활착 전망을 밝혀주고 있었다.

■ 구소련(서부): 건조가 계속되어 여름작물의 건조와 수확 작업을 가속화시켰지만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뭄 우려는 증폭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화창한 날씨와 평년을 웃도는 기온 (평년보다 2-6° C 높음)이 여름작물의 건조와 수확 작업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강화되고 있는 단기 가뭄 때문에 늦게 발달하고 있는 옥수수와 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확량 전망은 내려갔고 표토는 겨울 밀 파종에 필요한 수분이 결핍된 상태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중부, 북부, 서부 쪽은 60일 총강우량이 평년의 25-50%로 빈약하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남부와 동부에서부터 러시아까지는 여름 강우량이 평년 근처 또는 이상이어서 조기 파종하는 겨울 밀을 위한 토양 수분 저장량을 상승시켰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겨울 밀을 위한 표토 수분은 제한되어 왔는데 지난 30일간 건조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강우량이 평년의 10% 미만). 다만, 러시아 남서부와 우크라이나 남동부는 지난주에 내린 비로 아주 많이 필요했던 표토 수분을 지역적으로 공급받았다.

■ 동아시아: 소나기가 중국 북동부 전역을 완화시켰고 성숙 중인 옥수수, 콩, 벼를 위해서 알맞게 보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흑룡강성과 인근 전역의 계절 재배 조건은 거의 이상적이어서 수확량 전망이 우수했다. 양쯔 계곡의 가뭄 지역을 포함해서 동부의 많은 구역 전체에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6° C 높았고 낮 온도는 40° C에 육박했다. 이런 조건들이 여름작물의 성숙을 촉진했지만 남동부 일부에서는 계속되는 심한 가뭄으로 생식 중인 늦작물 벼를 위한 관수 공급량을 낮추었다. 강우 (25-200 mm 이상)는 중국 중부에 집중되어 사천(시추안)에서는 총강수량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여름작물에



유익을 주기에는 비오는 날씨가 너무 늦었지만 10월과 11월에 심는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을 위한 관수 공급량을 상승시켜주었다. 태풍 파사이는 일본 동부 해안을 지나면서 혼슈 중앙에 지역적으로 큰 소나기 (100 mm 이상)를 내렸다. 한반도에 내린 호우 (25-100 mm) 기간 동안 단기 (4주 미만) 가뭄이 완화되었지만 장기 가뭄은 여전히 심각했다.

■ 호주: 서호주는 대체로 건조하고 간헐적으로 뜨거운 날씨가 생식 중인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낮췄다. 비슷하게, 남호주와 빅토리아에 내린 국지성 소나기 (대체로 5 mm 이하)는 영양생장 또는 생식생장 중인 밀, 보리, 캐놀라에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해주지 못했고 반면에, 주초에는 추운 밤으로 국지적으로 서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호주 서부와 남동부는 작물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식 성장 단계를 지나고 있어서 현재의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려면 비가 더 와야 한다. 밀 벨트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에 내린 약한 소나기가 가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그다지 유익을 주지 못했다. 먼 북쪽은, 가뭄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의 잠재 수확량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계속되고 있는 심한 가뭄 때문에 파종이 시작되는 중에 토양 수분량 부족과 관수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여 작물 전망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호주 동부와 남부는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고 서호주는 평년보다 3-6° C 높았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 일부에서는 소나기가 겨울 곡물과 조기 파종한 여름 작물들에게 시기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북쪽 구역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코리엔테스를 지나기까지 총 강수량 10-50 mm의 비가 내렸고 가장 많은 양 (25 mm 이상)이 산타페와 엔트레리오스에 집중되었다. 이 수분은 건조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었던 코르도바와 인근에게는 특히 시기적절했다. 그 밖의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계절 온난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겨울 곡물에 수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남부와 서부 농업 지대에서는 계속 결빙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겨울 곡물의 성장은 아주 제한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 파종은 9월 12일 현재 31% 완결되어 파종 속도가 작년 (34%) 보다 약간 앞섰다. 파종 초기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북부 지역에서 파종이 이루어졌고 아르헨티나 최대 썬씨드 품종 생산 지역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아직 아무런 진전이 보고되지 않았다.

■ 브라질: ‘리오그란데 도 술’ 은 소나기가 내려서 밀을 위해서 적당한 또는 넘치는 수준의 수분을 유지해주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재배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리오그란데 도 술’ 주의 대부분에는 비가 25 mm를 초과해서 내렸지만 주간 평균 온도는 여전히 평년보다 높았고 밤 최저 기온도 영상을 유지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리오그란데 도 술’ 지역의 밀 작물의 거의 70%가 생식생장-종실 비대기에 있었다. 브라질의 다른 지역들은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다만 북동부 해안을 따라 간간히 소나기가 조금 (지역적으로는 25 mm 이상) 내렸을 뿐이었다. 이 건조가 계절적인 포장 작업에는 알맞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당장 콩과 비가 필요한 기타 여름작물들을 심어야 해서 계절적인 강우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019/20 첫 파종 옥수수는 9월 9일 현재 9% 파종되었고 2018/19 2차 파종 옥수수 수확은 사실상 완결되었다 (99%). 추가적으로 밀은 28% 수확

되었고 나머지는 종실비대-성숙 단계에 있었다.
